

이주민들과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GN 선교다큐멘터리 ‘미션로그’ 2화 공개

굿스폰 선교회의
김재역, 김영금 선교사 부부

CGN 미주지사에서 제작한 선교다큐멘터리 ‘미션로그’ 2화(연출 주재후, 구성 민지혜)가 CG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미션로그’는 한인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배우며 닦아 가는 목적으로 제작했다.

‘미션로그’ 두 번째 주인공은 굿스폰 선교회의 김재역, 김영금 선교사 부부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화려함 뒤편에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중남미 난민들이 있다. 김재역, 김영금 선교사는 매일 새벽 2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모여드는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 고단한 헌신이 고생이 아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김재역, 김영금 선교사를 통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배운다. CGN 선교 다큐멘터리 ‘미션로그’는 매일 한 편씩 새로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CGN 유튜브 채널과 기록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10월까지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2월 9일(일)까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을 할 때는 입학신청서, 추천서 양식을 작성한 다음, 증명사진 2매와 함께 캠퍼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예수제자학교(JDS)는 2월 말부터 10월까지 이어진다. 서빙고 주간반과 저녁반, 양재 주간반과 저녁반, 수원 저녁반, 부천 주간반을 운영한다. 서빙고와 양재 주간반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서빙고, 양재, 수원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부천 주간반은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QR에서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3215-3625



온누리M미션, 1월 25일~2월 3일 ‘이주민 설 집회’ 네팔, 몽골, 스리랑카 등 12개국 이주민 920명 참석

이주민들이 아주 뜻깊은 설날을 보냈다. 온누리M미션이 개최한 ‘2025 이주민 설 집회’가 지난 1월 25일(토)부터 2월 3일(월)까지 각 지역 M센터에서 막 올랐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국가별, 민족별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아웃리치가 이어졌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의 장(場)이었다.

올해 이주민 설 집회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아랍,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러시아 예배공동체 소속 이주민 920명이 참가했다. 서빙고 네팔예배는 1월 28일 군포 하나로 복지

재단, 안산 네팔예배는 1월 28~29일 대부도 펜션 수까사로 아웃리치를 갔다. 몽골예배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안산 미얀마예배는 1월 28일 미얀마 헬터에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다. 안산 스리랑카예배는 1월 28일 안산M센터에서 예배드리고,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로 나들이 갔다. 군산M센터는 1월 29~30일 강화도와 서울 경복궁 나들이를 했다. 서빙고 아랍예배는 1월 30일 아흐마드 형제 집에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안산 인도네시아예배는 1월 29~30일 경기도 가평, 안산 안디옥교회는 1월 28일 대관령 양떼목장

과 정동진 해변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안산 캄보디아예배는 1월 25~28일 영종온누리교회 M하우스, 남양주 캄보디아예배는 1월 30일~2월 3일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안산 태국예배는 1월 28~30일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 안산 필리핀예배는 1월 28~29일 안산M센터에서 집회를 열었다. 남양주, 인천, 화성, 김포M센터 등 지역 M센터에서도 국가별, 민족별 설 집회를 진행했다.

람가나 형제(안산 스리랑카예배)는 “이번 이주민 설 집회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공동체와 친구들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깨달았다”면서 “앞으로도 온누리M센터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신앙 생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미국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통로

인투 달라스교회(IN2 Dallas Church) 창립예배

‘인투 달라스교회’(IN2 Dallas Church) 창립예배를 지난 1월 26일(일) 드렸다. 인투 달라스교회는 미주 온누리 비전교회 협력교회로, 뉴저지온누리교회에 의해 개척됐다.

인투 달라스교회 창립예배는 심형진 목사의 찬양 인도, 최경주 장로, 이용규 선교사, 홍재회 선교사의 축사,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찬수 목사의 영상 축하 메시지 상영, 마크 최 목사의 설교, 박대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인투 달라스교회가 시작됨으로써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더욱 힘있게 이루어 나가게 됐다”면서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인투 달라스교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달라스 프리스코에 있는 프리스코홀을 빌려서 주일예배를 드린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월 비전헌금,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후원

2월 8~9일 봉헌하는 2월 비전헌금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EDS)을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은 1897년 미국 시카고 어느 교회 지하실에서 열린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 중 하나로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전 세계 목회자, 선교사,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신학생을 배출했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시대에 바벨론 같은 제국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나타났고, 미래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세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받은 이유는 바벨론의 영향력을 잘 극복하고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책망 받은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 곧 용의 세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죄들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합니다. 둘째, 음행을 조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셋째,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나라들을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죄를 범합니다. 넷째,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의 도전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도 바벨론입니다. 지난 2천년 동안 교회가 바벨론의 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 다. 그 시기 교회는 더욱 정결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도 책망이 있었지만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볼 때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박해받는 시대에는 교회가 정결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벨론 같은 제국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또 통치자들에 의해서, 국가 체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교회들은 정결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는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5)-두아디라교회

요한계시록 2:18~29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시대 바벨론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구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 교회는 오히려 정결했지만, 유혹의 시대 교회는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시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압력이 큰 유혹이었습니다. 변방에 있는 통치자들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얼마나 많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일으키는 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이 충성심을 일으키면 인정받는 것이고, 충성심이 떨어지면 그 통치자는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바벨론은 교회가 정치권력과 하나 되는 유혹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두드러진 시기가 콘스탄티누스부터 테오도시우스 1세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를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기간이라고 평가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우호적이고 친화적일 때 성도들은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검으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국가권력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바벨론 아래서 어떻게 어린양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어린양을 따라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용을 따라 바벨론에서 살 것인가입니다. 용의 영향 아래 있는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어린양을 미워하며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지만, 어린양은 이길 것이고,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핵심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계 17:14). 이 확신을 일곱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어린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왔지만,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믿음
두아디라 교회 같은 믿음

두아디라는 장인과 상인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주색 욕감장수였습니다.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18절).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자신을 소개하시며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대상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청동같이 빛난다’는 것은 불로 제련된 청동이라는 것입니다. 발이 불로 제련된 청동이라면 어떠한 반대와 핍박과 대적도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십니다(19절).

두아디라 교회에는 신앙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입니다. 신앙의 소중한 가치이자 필수적인 자질들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의 사랑과 믿음, 봉사와 인내가 더 훌륭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더 좋았다면 에베소 교회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좋았지만, 오늘의 믿음이 더 좋다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를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훌륭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20절).

이세벨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명 높은 여인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로서 실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인입니다. ‘이세벨’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순수한’, ‘순결한’이란 뜻인데,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이세벨은 1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악령이 주후 1세기 선지자를 자처하는 한 여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무역 길드가 번성했는데, 경제적으로 유지하려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문제는 길드들이 각자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예식과 연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는데 그 의식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고, 수호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 길을 제시 해준다고 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라는 말은 안 하지만 거짓으로 속이며 합리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대 교회에도 이세벨의 가르침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면서 타락한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21~23절).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또한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남은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무섭게 경계하시지만, 충성된 자들에게는 격려와 약속을 주십니다(24절).

어느 시대 교회라도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입니다. 죄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벽,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은 곧 날이 밝을 것을 보여주는 선물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얼마나 끈기 있게 견디며 남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시대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까?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때로 경제적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과 불법과 음란과 악독과 우상숭배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에 참여할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가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만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것입니까? 이 시대 바벨론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현대 사회와 정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025년 한국은 정치적 혼란기에 놓여 있다. 사회는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깊은 분열을 겪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듯 보인다. 이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개인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란시스 웨퍼(1912~1984)의 책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는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웨퍼는 현대 문명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를 지적하면서 성경적 진리가 인간 존재와 사회적 구조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신학적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정치와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며 이에 대한 기독교적 해법을 제시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체계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고, 이에 따라 세상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회복과 새 창조의 희망을 품

게 된다.

이 세계관은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의 내적 성찰, 윤리적 판단,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참여까지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새롭게 조명한다. 웨퍼는 성경적 진리가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칼 구스타프 융(1875~1961)은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과 그림자(Shadow) 개념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억압된 욕망과 부정적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그림자를 피하지 못하고, 권력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융의 관점에서 지도자들은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압된 그림자가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실패로 드러난다.

기독교 세계관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웨퍼는 개인적 회

심과 도덕적 갱신이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끌어내는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지도자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사명을 수행하는 청지기로 간주한다. 지도자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통치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책임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초가 된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이상과 멀어진 모습을 본다. 2025년 한국 정치인들은 대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다. 웨퍼는 사회적 문제해결은 개인의 내적 변화와 신앙적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한계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 이는 정치와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덕적 공백 상태에 있는 사회는 성경적 진리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도자와 국민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를 회복한다면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의 윤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2025년 한국 사회는 깊은 혼란과 위기 속에 놓여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죄성과 내적 그림자를 직시하고, 성경적 진리와 윤리를 삶과 정치 중심에 둘 때 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란시스 웨퍼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개인

과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준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유현목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특별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A.W. 토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신념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생각이 똑같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에 대한 필독서는 토저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와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있다. 그 밖에도 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찰스 콜슨의 〈러빙 갓〉, 가장 최근에는 새디어스 윌리엄스의 〈하나님을 경외하기〉(Revering God)가 있다.

바이올라대학교의 윌리엄스 교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가르치는 모든 수업은 항상 똑같이 다음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신학자님들, 안녕하세요!’ 영화, 비즈니스, 과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강의실에 있지만, 나는 그들 모두를 신학자로 대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모든 학생이 ‘모든 사람은 신학자’라는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팔꿈치에 패치를 단 트루드 양복을 입거나 라틴어로 어거스틴을 인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든, ‘theanthropos’ (성육신하신 하나님)라는 단어를 10배 빨리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창조주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학자입니다. 사실 나태, 인종 차별, 종교의 자유,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등 문화적 또는 정치적 이슈로 생각하는 문제는 가장 깊은 수준에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진리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오늘날 이슈를 명확하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시대의 속임수와 선전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거의 1세기 전에 A.W. 핑크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현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가! ... 오늘날 많은 강대상의 하나님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보다 동정의 대상이다.”

많은 강단에서 진지한 신학이 결여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5%의 복음주의자들이 “모든 사람은 죄가 없이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좋고 훌륭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코치로서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3%의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셨지만, 신은 아니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하

나님이 아니라면 죄의 무한한 형벌을 치를 만큼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잃게 됩니다. 미국에서 10대 이전 자녀를 둔 부모 3분의 2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그중에서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 사람은 2%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거나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 사람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훌륭한 신학자(가정주부 신학자, 기계를 다루는 신학자, 사무직 신학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겸손한 섬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임무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5세기 전, 마틴 루터가 신학자의 자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유명한 저서 〈탁상담화〉에서 이 용감한 독일의 종교개혁가는 하나님의 은혜, anfechtung(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독일어), 하나님의 말씀과 혈육으로 이루어진 동료 성도들과의 지역 공동체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다른 사람들과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일, 성경을 꾸준히 깊이 연구하는 일,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0년 전 노예 출신 흑인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레뮤엘 헤인즈는 신학자의 특징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 마음의 간사함에 대한 경계,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 등을 덧붙였습니다. 루터와 헤인즈의 통찰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경외심’ 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다는 의미인 ‘yirah’로 300번 이상 나옵니다. 좋은 신학(그리고 정치, 문화,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교만을 깨뜨리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A.W. 토저가 옳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좋은 신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위대한 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생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 경건한 생각,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의 강단, 우리의 교회, 그리고 진리가 부족한 문화가 이를 필요로 한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원문: breakpoint(20250124)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우리 아이 ‘행복 사진첩’ 채우기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아이들은 행복할 때 ‘찰칵’ 사진을 찍는다.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간직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그 중요

성으로 이야기가 확장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실치료와 선택이론을 개발한 윌리엄 글래스(William Glasser) 박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험이나 대상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의 사진첩에 저장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라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그것을 ‘찰칵’ 사진으로 찍어 기억에 담아둔다는 것이다. 그 사진첩이 두툼한 사람일수록 삶을 살아가는 힘이 세진다.

부모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이 많은 아이일수록 삶을 살아가는 힘이 강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럼 아이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찰칵’ 사진으로 찍어 보관할까? 부모가 부부로서 행복할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행복한 기억으로 저장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부로서 행복한 모습을 자주 그리고 많이 보여줘야 한다.

이 외에도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 사진을 찍는 순간을 나누고자 한다. 이 방법들을 토대로 아이들의 행복 사진첩을 두툼하게 채워나가기 바란다.

첫째, ‘문 인사’다. ‘문 인사’는 필자가 만든 용어인데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를 말한다.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 문 앞에서 부모가 “오늘도 애썼다”고 칭찬하며 인사하는 게 문 인사다. 문 인사는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배우자에게도 꼭 해줘야 한다. 아침에 나가는 배우자를 격려하고, 들어올 때 반갑게 맞아줘야 한다. 우리 가정을 예로 들면, 나는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마다 배에 손을 얹고 “여보,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예쁜 목소리로 인사하고 했다. 남편은 장난스럽게 “오냐”라

며 내 인사를 받는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가는 남편은 어깨가 썩 펴진다고 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는 문 앞에서 난리가 난다. 아이들과 내가 서로 남편에게 먼저 안기겠다고 달려나가곤 했다. 남편은 그 순간 모든 하루의 피곤이 풀린다고 말했다. 문 앞에서 따뜻한 인사는 그 사람에게 ‘너는 중요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 문 인사는 사람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어서 와. 오늘도 애썼지?”라는 단순한 인사에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도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된다.

둘째, 부모가 자녀 곁에 머물러 줄 때 아이들은 행복 사진을 찍는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낚시가 안 되는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 그 아빠는 낚시가 잘되지 않아 너무 재미가 없고,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 순간을 최고의 날로 기억했다. 아이의 일기장에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로 기록됐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머물러 줄 때 기억하면 좋은 게 있다. 자녀가 그 순간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무엇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자녀가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 알아채고, 그것을 지지해준다면 아이의 관심과 열정이 자라게 된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흙 같은 존재다. 흙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과 수분을 준다. 흙이 영양분과 수분을 줄 때 식물은 태양을 향해 자라난다. 이처럼 아이들도 부모가 따뜻한 흙처럼 곁에 머물러주고, 지지와 관심을 주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부모의 관심과 지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성공하게 된다.

셋째, 아이들은 배려를 받으며 배려를 배울 때 행복 사진을 찍어 저장한다.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르치고 싶어한다. 그런데 배려를 강요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배려를

불편한 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배려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배려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려를 베풀어서 배려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먼저 체험하게 하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넷째,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읽어줄 때 행복 사진을 찍는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부모의 생각대로 말한다. 아이를 향해 ‘예쁘다’, ‘밋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단정하다’, ‘지저분하다’ 등을 말하곤 하는데, 잘 들어보면 전부 부모의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다. 아이가 예쁘거나 미운 것, 부지런하거나 게으른 것은 부모의 생각이고 판단이다. 아이들이 화를 낼 때도 부모들은 아이의 감정을 보지 않고, ‘아 재가 요즘 사춘기구나’ 생각한다. 아이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전부 부모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모습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내 감정에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들게 된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 또는 성적문제로 힘들어하며 집에 들어온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줄 때 큰 행복을 느낀다. ‘집에 오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잖아. 집에 오길 잘했어’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찰칵’ 찍어 행복 기억에 저장한다.

행복한 순간을 ‘찰칵’ 사진처럼 찍어서 간직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배려하면 자녀는 그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자존감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쌓인 행복한 순간들이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아이들의 행복 사진첩이 두둑해지기를 바란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8편 행복할 때 찰칵 사진 찍는 아이들’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 도둑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월 5, 7일 본문 <요한복음> 10장 11~15절, 32~36절



1.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 보세요.

- ①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아요(요 10:11).
- ②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요(요 10:12).
- ③ 자기 양을 알아요(요 10:14).
- ④ 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요 10:13).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요 10:33)

- 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 ②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 ③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④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처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나도 헨리 맥스웰 목사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서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떠돌이를 받아준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떠돌이가 죽을 때는 가슴이 아팠다. 또 예배가 끝나고 사무실로 모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라면 ‘뭐라고? 평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며 행동하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책 표지에 적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라는 말이 참 감동이었다. 나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을 본받기로 했다.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되도록 교회를 빠지지 않고, 전도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필기도 할 것이다. 친구들을 전도할 것이다.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평생 한 번은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을 기회를 만들어주신 온누리교회 도서관에 감사하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내게 아주 크고 기쁜 일이었다. 앞으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떠올리며 신앙을 키우는 삶을 살 것이다!

권이은 학생
(서빙고 초등2부)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내 삶을 변화시키는 'QT'

“QT 도와드립니다!” ... 큐티사역부터 도구까지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새해 다짐으로 운동도 좋고, 외국어 공부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 동역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실천해야 수월하다. <온누리신문>에서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순서는 'QT'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큐티스쿨 훈련생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건 훈련을 말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소중한 시간이다. QT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을 삶에 적용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QT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신앙 실천이다.

QT의 모든 것 알려준다 '큐티사역'

사실 QT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다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없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온누리교회 '큐티사역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큐티사역팀에서는 큐티의 정의부터 목적, 유익과 구체적인 방법까지 QT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공동체,

사역팀, 지역 교회, 단체 등과 협력해서 QT에 관한 교육과 훈련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큐티사역은 '큐티스쿨'이다. QT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QT 나눔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날마다 QT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월 170기, 4월 171기, 5월 172기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QR 참고). QT를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큐티스쿨을 수료했지만, 아직도 QT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강의도 있다. '큐티 REFRESH'가 그것이다. 큐티스쿨을 수료한 온누리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QT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QT를 소개하고 그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QT 관련 강의와 나눔, 발표 등이 이어진다.

QT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

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그런데 QT를 함께하면 기쁨과 은혜가 배가 된다. 큐티사역팀이 지난해 가정사역공동체와 협력해서 '부부 큐티스쿨'을 운영했다. 부부가 함께 QT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함께하는 QT의 유익을 소개했다. 올해도 부부 큐티스쿨이 개강한다.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신동아쇼핑센터 302호에서 진행된다(QR 참고).

함께하는 QT의 즐거움은 '큐티 나눔방'에서도 누릴 수 있다. 큐티스쿨을 수료하고, 순예배에서 QT 나눔을 지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서 QT나눔이 어려운 성도들을 대상으로 '큐티 나눔방'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01호에서 열린다(매월 둘째 일요일 및 방학 기간 제외). 큐티 나눔방은 큐티스쿨 수료자가 대상이다.

QT를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게!

QT를 하고 싶는데 여러 사정으로 QT 관련 강의와 교육,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혼자서도 QT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QT를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우선,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를 활용하면 좋다. 두플러스 <생명의 삶> 메뉴에 들어가면 매일 QT 본문 말씀과 해설, 에세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디오로도 본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다. 그날 본문 말씀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추천해줘서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다. 'QT 노트' 기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묵상 내용을 나눌 수도 있다.

CGN에서는 성도들의 QT를 돕기 위해 '큐티] 생명의 삶'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매일 QT 본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올바른 적용 및 실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기독 OTT '풍당'과 CGN 생명의 삶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온누리신문>에서는 'QT 프리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QT 프리뷰'는 다음 한 주의 QT 본문과 묵상포인트를 미리 살펴보고, 적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편집부에서 원고를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서 읽을 수 있다.



사역칼럼



강창재 장로
(큐티사역팀 담당)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지 어느덧 45년이 흘렀다. 그동안 내게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였을지언정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에서 QT를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깨달았다. 온누리교회의 DNA는 QT, 일대일제자양육, 공동체(순)에 있다. 그중에서 QT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

우리는 왜 QT를 해야 할까? 성도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주신 선물인데, 성도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할 뿐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 12:2)고 권면한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묵상'은 소가 되 새김질하듯 그날 읽은 성경 구절을 마음에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묵상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

를 따른다"(요 10:27)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묵상의 목적은 '적용'에 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 14)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QT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중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으며,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막 1:35, 눅 22:39, 요 18:2, 히 5:7).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QT다.

QT할 때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우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아침 첫 시간이든, 점심 식사 전후든, 잠자기 전이든 상관없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 된다. 장소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하나님 말씀이 적힌 성경이나 <생명의 삶>과 같은 QT 관련 서

적도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꺼내 볼 수 있는 성경 앱을 활용해도 좋다.

QT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QT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새벽기도에 참여하거나 <생명의 삶> 교재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은 QT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QT하지 않는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신앙이 아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 말씀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오랫동안 큐티하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매너리즘이다. 아는 말씀도 곱씹으며 다시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QT가 우리 신앙에 중요한 만큼, 다른 신앙 실천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지해야 한다. 성경통독이나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성도가 매일 QT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우리 모두 QT하며 살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고아 돌보는 ‘온누리울타리’와 자립준비청년들의 설날



오창화 팀장
(사회선교본부 온누리울타리)

“보육원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보육원 퇴소 이후 처음으로 구정을 혼자 보내지 않고 많은 분과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복한 구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소속된 ‘온누리울타리’ 사역으로 진행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느 청년이 보내준 메시지다.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외로운 날이다. 그래서 온누리울타리 사역자 중에서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구정과 추석,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윷놀이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물론 온누리울타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립준비청년들을 향한 복음 전도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시작된 ‘명절 모임 행사’에 항상 같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한다.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원가정에서 분리됐거나 부모의 이혼 또는 경제적 이유로 원가정에서 분리됐다.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원가정에서 강제로 분리된 청년들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고, 우울증과 무기력증도 심하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정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육원에 들어간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고, 학대와 방임, 가정불화 등으로 보육원에 간 청년들은 “나의 가정은 지옥”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인지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게 어찌면 당연하다. 온전한 가정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청년들에게 가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는 게 온누리울타리 사역이다.

온누리울타리 안에서 함께 드리는 ‘명절 예배’

온누리울타리 사역자들은 아픔을 가진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가정에서 명절을 보낸다.



온누리울타리 리더십 및 사역자들이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다.

“성경에서 ‘고아를 돌봐 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과 명령이 600번이나 나온다. 온누리교회 고아사역에 재정이 넘치고, 사역자들이 넘쳐나서 더 많은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들에게 잠시나마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고, 진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입과 마음을 연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제작년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식사가 생각난다.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웃음이 쏟아지는 데 구석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한 자매가 눈에 보였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에 쉽고 깊게 상처받는 이들이기에 혹시 내가 한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나 싶어서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내가 말실수를 했다면 용서해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나요?”

그 자매에게 돌아온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그 자매는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어요”라고 소망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매가 어렸을 때 겪었던 끔찍한 학대의 상처보다 강력했던 것 같다.

지난주 구정모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이미 몇 년을 함께해서 친분이 두터운 자립준비청년들도 있었고, 지난해부터 온누리울타리 사역에서 1년 동안 교제한 이들도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런지 편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독교 보육원에서 자라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은 있지만, 보육원 퇴소 이후 교회를 다니는 비율은 매우 낮다. 온누리울타리에서는 바로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자립준

비청년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한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중에 내 곁에 앉은 청년에게 마이크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이크를 넘겼다. 그 순간 그 청년이 아무렇지 않게 마이크를 잡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다. 할렐루야! 아내와 함께 간절히 소망했던 것 중에 온누리울타리 예배를 드릴 때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팀을 꾸리는 게 있었는데,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다. 믿음이 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여주셨다. “이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다.

예배 후에는 자립준비청년들과 종일 준비한 만둣국과 갈비찜, 각종 전과 잡채 등으로 배부른 식사를 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자랑하면서 웃음 가득한 식사를 했다. 역시 함께 떡을 떼면서 입을 열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식사 후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세배를 받고, 한 명 한 명에게 준비한 말씀 카드를 나누며 축복했다.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축복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외롭고 힘든 청년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

항상 그렇듯 상품이 걸린 윷놀이도 했다. 다들 목이 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윷을 던지며 몰입했다. 상대방의 실수에 박장대소하고, 자신들의 팀원들과는 “파이팅”을 외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중에 꼴찌인 나에게 자립준비청년들이 추석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해줬다. 늦은 시간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며, 멀고 외진 곳에 사는 여자 청년을 아내가 바래다주자고 해서 동행했다. 차 안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진 곳에 있는 숙소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청년을 잠시 붙들고 그가 나눈 말들을 기억하며 아내가 기도했다. 기도를 마쳤더니 뒷자리에서 그 청년이 “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가 자매를 안아주고 축복했다. 조금씩 포장한 남은 명절 음식을 건네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전달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고아사역’

온누리울타리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소속된 ‘고아사역’을 하는 팀이다. 보육원 아동들과 결연하는 ‘열린울타리’ (가정의 문을 열고 고아들을 품어 달라는 의미) 사역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푸른울타리’ (보육원을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푸른 미래를 응원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자는 의미) 사역으로 구분된다. 지난해에는 보육원 3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5명이 온누리교회 가정들과 결연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기를 기도한다.

푸른울타리사역은 현재 26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매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지 못해서 못내 아쉽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일대일로 기도하는 멘토도 20여 명밖에 없다.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자립준비청년 한 명에 여러 명의 중보기도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은 일대일로도 섬기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서 “고아를 돌봐 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과 명령이 600번이나 나온다. 온누리교회 고아사역에 재정이 넘치고, 사역자들이 넘쳐나서 더 많은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땅의 고아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더 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고아사역에 앞장서는 ‘온누리울타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문의: 010-2049-8210(오창화 팀장), 010-6479-0885(이수정 총무)

온누리울타리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20-36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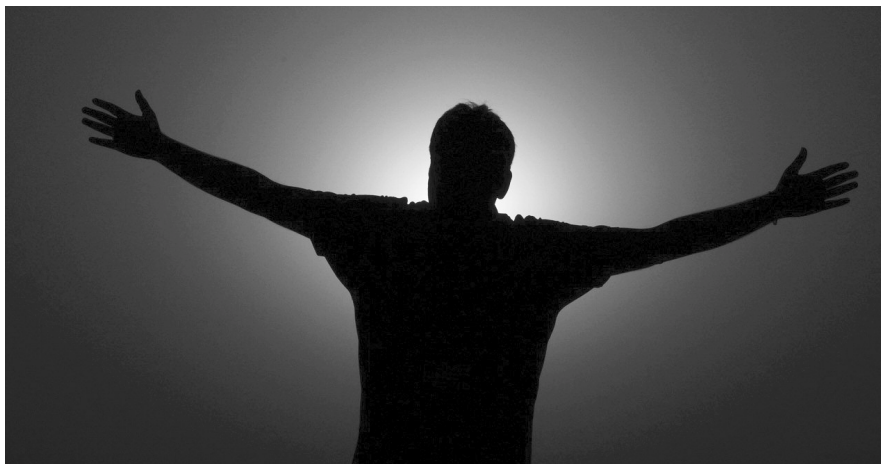
멘토가 멘티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이루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자본의 규모나 인력, 기술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정말 많다. 가까운 미래에 전망 있는 분야라 여겨져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치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상황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개인과 기업들을 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는 이런 사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진정한 성공은 튼튼한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세상의 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많은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불안정성이나 사업 경영 방침의 잘못된 결정이 큰 위기로 이어지는 세상의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마치 건물에 고층으로 지어지기 전에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내적인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기초란 신앙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이다. 물질적 성취나 세사적



인 성공이 반드시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이, 건물의 기초를 다지듯이, 굳건한 신앙의 기초를 다짐돌로 버틸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참된 기독교적 성공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는 종종 돈, 명예, 권력 등 외적인 성과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공은 그것과 다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즉, 세상의 성공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

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셋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실패 사례들처럼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자금을 확보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노력만으로 세사적인 성공을 쫓는다면 그 끝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변수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파도처럼 닥쳐오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

다. <잠언> 3장 5-6절에서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네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비록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줄 것이며,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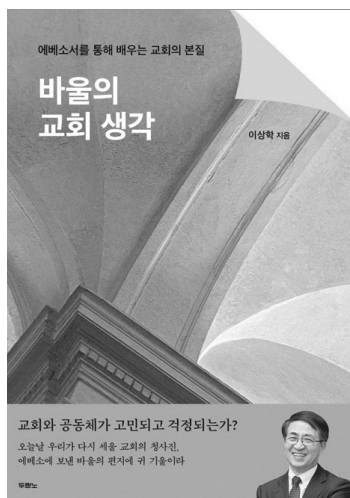
세상에서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세이다. 세상의 평가나 외적인 기준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김동원 멘토
(요셉청년부)

두란노 신간

교회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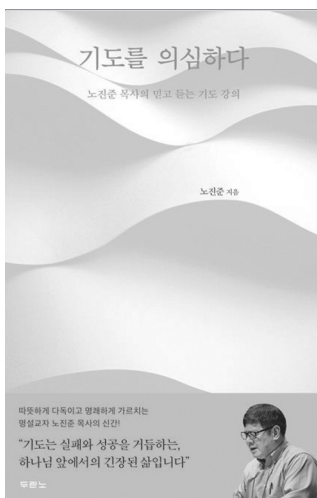
〈바울의 교회 생각〉
이상학 저 | 두란노 | 20,000원

〈바울의 교회 생각〉에서는 바울이 개척하고 양육했던 에베소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변화된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과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소개한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삶과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의 저자 이상학 목사는 <에베소서>를 읽으며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자 하신 교회를 눈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탈기독교, 핵개화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해야 할까?”

기도, 동행 그리고 누림!



〈기도를 의심하다〉
노진준 저 | 두란노 | 17,000원

능력도 믿지만, 여전히 기도가 어려운 이들에게 모범 답안을 전하지도, 틀에 박힌 조언을 하지는 않는다. 기도는 평안을 주는 신경안정제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요구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의 목적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의심하다〉는 기도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과 더 깊고, 가깝게 만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도를 의심하다〉는 설교와 CBS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 성도들의 풀리지 않는 의문과 낙심에 답해 온 노진준 목사가 쓴 책이다. 노진준 목사는 이 책에서 단어 하나, 복수 표현 하나로 달라지는 성경의 의미를 세밀하게 해석해 주면서 오해를 부수고, 기도의 틀을 보장한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진짜입니까?〉
이기용 저 | 두란노 | 16,000원

국에는 은혜 속에서 진짜배기로 산다.

〈진짜입니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는 어떤 신앙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 거세게 이는 삶의 풍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오늘날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기와 혼돈이 가득한 시대다. 다양한 풍랑을 만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와 위기, 고난이 거듭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 이기용 목사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진짜는 넉넉히 이기고, 진짜는 죄인을 구원하고, 진짜는 생명이 넘쳐나며, 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명절 보내기’

온누리울타리, 가정의 품을 선물하다



지난 29일 온누리울타리에서 준비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

사회선교본부 소속 사역팀 온누리울타리에서 지난 1월 29일(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온누리울타리 리더십 및 봉사자, 자립준비청년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명절 보내

기 프로그램은 보육원 퇴소 청년들에게 가정의 품을 선물하는 고아사역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즐거운 놀이 등을 함께하며 교제하고 축복했다.

온누리울타리는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본부 소속 고아사역팀이다. 보육원 아동을 돌보는 ‘열린울타리’,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푸른울타리’ 사역을 하고 있다. 고아를 돌보는 입양, 위탁, 결연, 후원, 봉사 등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회복사역 ‘엘라이프’ 참가자 모집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토 오전 10시

회복사역본부 ‘엘라이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일(토)부터 4월 12일(토)까지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신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2월 26일(수)까지 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9만 원(매주차

인바디,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비용 및 외부 리트릿 비용 포함).

엘라이프는 40일 동안 기쁨, 기도, 감사, 운동, 음식 등 다섯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답게 사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준다.

문의: 02-3215-3532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서빙고 2월 21일, 양재 14일까지 서류 접수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에서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서빙고는 2월 21일까지, 양재는 2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 졸업증명서, 임상 경력증명서(면접 상

답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해당 자만)이다. 비용은 한 학기당 50만 원이다. 총 2학기 진행된다. 매주 슈퍼비전과 학기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한다. 합격 여부는 개별 연락한다.

문의: 서빙고(010-4215-3675)

양재(02-570-753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유튜브 영상스쿨 3월 14일 개강

유튜브 영상스쿨이 3월 14일 개강한다. 5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9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

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DSLR 및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 02-3215-3667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훈련생 모집

2025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소망을 전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호스피스 전문 강사 8인이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3412-7966

일하세 아카데미 22기 참가자 모집

일하세 아카데미 2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일터에서 성공하기’를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앞 신동아쇼 핑센터 311호에서 진행된다.

강의, 주제별 그룹 활동과 사례공유 등도 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6321-9522

2월 화요성령집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2월 화요성령집회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1일 최성민 목사 ‘돌아켜 회개하라’ (요엘 2:12~27), 18일 최대홍 목사 ‘돌아켜 사랑하라’ (요일 4:7~12), 25일 이서진 목사 ‘돌아켜 순종하라’ (야고 1:19~27)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청춘클래스 11기 참가자 모집

3월 15일과 22일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청춘클래스 1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5일(토)과 22일(토) 오후 12시 30분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 16일(일)까지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청춘클래스 11기에서는 개그맨 조래훈이 사회를 보고,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와 개그맨 오지현이

강의한다. 강의 이후에는 3대3 대화(15일)와 1대1 대화(22일)가 이어진다.

청춘클래스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돕기 위해 2021년 시작했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cafe.naver.com/youthclass)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여성자립페인’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신청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여성자립캠페인’이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번 캠페인에서 모인 후원금은 르완다 국빈 여성 가장 7명으로 구성된 재봉조합 ‘임하노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노후화된 재봉틀 수리비용과 수선 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나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르완다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문의: 02-2271-2248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모집

경제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웃 돕는 사역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경적 재정관리, 가계부채 상담, 재정상담 등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

성 과정에서는 ‘기독교 정의와 부채탕감의 성경적 의미’, ‘부채에 대한 이해’, ‘많은 채무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법’, ‘많은 채무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법’, ‘상담 매뉴얼’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550-3655

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구약) 참가자 모집

3월 7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시 서빙고 두란노홀

서빙고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구약)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조호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수

강신청은 3월 7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3만 원이다.

문의: 02-3215-3247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2-92205(온누리스쿨2)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자!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통즉불통 불통즉 통(通則不通 不通則通)’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피의 흐름에 관한 말인데 ‘막힌 핏줄을 뚫어 주면 아프지 않고,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옛 선현들은 소통

이 잘 돼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했다.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공감을 얻고, 잘 들어야 소통이 잘 된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입장과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자꾸 남의 말에 토를 달고 지적하며 공감하지를 못한다.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즐거움과 여유로움, 만족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다. 행복은 즐거움과 동시에 의미가 있어야 더 좋다. 행복은 환경과 명예, 권력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만족할 수 있는가에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호감이 생기기를 원한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떠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가능하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의견을 경청할 때 관계 형성이 좋아지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금란지교(金蘭之交)’는 황금같이 단단하고, 난초같이 향기로운 친구 사이란 뜻이다. 친구는 가족과 연인은 아니지만, 그들만큼이나 살아가는 데 중요한 사람도 없다. 생애에서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공감과 소통을 이루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고난을 헤쳐나갈 동력이 된다. 권력과 재산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고, 부모의 사랑과 보호도 영원할 수 없다. 하지만 능력과 지식 그리고 공감력 있는 좋은 친구는 인생의 불행과 좌절에 큰 위안이 된다.

성경 속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였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한 요나단에게 다윗이 사랑의 글을 남겼다.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현대사회 특징 중 하나가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다. 외로움은 가족과 친구, 사회로부터 격리될 때 생긴다. 외로움은 원하는 사회관계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온다. 문제는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의 필수요건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지해 줄 버팀목이다. 버팀목은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갇힌 바다에 내던져진 것만 같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슬픔에 갇혀 있다. 이 땅이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고, 평온함과 희망이 깃들기를 바랄 뿐이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다. 이럴 때일수록 나부터 남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어 가면 어떨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것에 사랑을 더했으면 좋겠다. 올 한해도 인생의 가치를 잃지 않고, 공감과 소통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정말 귀한 사역 ‘호스피스’

임정민 권사
(온누리호스피스)

2023년 11월 남편이 큰 수술을 받았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남편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나는 큰 슬픔과 두려움, 낙심에 잠겼다. 온몸이 무너지는 듯했고, 죽음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그동안 죽음과 애도, 웰다잉(Well-dying)을 배우고, 가르치고, 상담했지만, 정작 나와 남편의 죽음은 너무 먼 이야기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며 수술실 밖에서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그날의 두려움과 절망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회복사역팀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남편이 기적적으로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며 고민했다. 남편과 연로하신 친정어머니, 그리고 나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이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신문>에서 스치듯 보았던 ‘호스피스스쿨’이 떠올랐다. 호스피스스쿨 과정을 수료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임종을 앞둔 이들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임을 확신하며 호스피스스쿨에 참여했다.

호스피스스쿨 첫 번째 교육을 받던 날, 깔끔하게 정돈된 강의실이 인상적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강의실이 호스피스 사역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비추는 것 같았다. 환자들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정돈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호스피스 사역 아닐까? 호스피스 사역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보좌 옆으

로 가는 길을 함께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렵고 외로운 그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호스피스스쿨에서 발 마사지를 배우는 시간은 예상과 많이 달랐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마음을 담아 섬기는 과정이었다. 아주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진행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발마사지를 해줬는데, 정말 만족스러워했다.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감기로 기운이 없으셨던 친정어머니도 마사지해드리며 나의 마음을 손끝으로 전해드렸다.

비가 내리던 가을날,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 봉사활동을 갔다.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관계기술훈련에서 배운 대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눈빛으로 어르신의 왼쪽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다.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렸다. 어르신이 그 마음을 느끼셨는지 눈물을 흘리셨다. 말보다 강한 비언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확신했다. 이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남편의 아픔을 통해 나를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끄셨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다. 호스피스스쿨에서 섬김의 기쁨을 배울 수 있었다.

호스피스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맞이하도록 돕는 귀한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간다.

신앙에세이

송예찬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청년들을 심방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의 막막함, 가정 내 갈등과 질병, 관계의 상처, 경제적 이슈, 영적인 문제까지 온갖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다 보면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실 만도 한데 왜 그러지 않으시는 것일까?”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고난이 어떻게 선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걸까? 청년들과 함께 경험했던 고난의 크고 작은 유익을 나누어 본다.

첫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된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시 119:71)라고 말한 기자의 고백같이, 고난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난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세상 조건들과 상황들을 소망 삼아 살고자 한다. 그 명확한 증거 중 하나는 ‘그것(내가 소망 삼은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심히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기에 오직 예수님을 소망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고난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셋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깊이 이끈다. 누

군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진실한 말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손을 얹고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 고난을 통과할 때 이전까지 ‘혼자’로만 존 재했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함께’로 발견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혼자 외로이 싸울 뻔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서 비로소 함께 싸울 동역자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겪는 무지막지한 괴로움이 아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고난은 결코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견디고 인내하여 우리 모두 선한 결말에 이르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란노

신앙 교육, 가정이 답입니다

두란노 QT지 가정예배 코너 수록

큐티로 가정예배



청·장년 생명의삶

생명의삶

(개역개정 / 우리말)



청소년 생명의삶

sena

(새벽나라)



유·초등부 생명의삶

예수님이좋아요

(고학년 / 저학년)



유아·유치부 생명의삶

예수님이랑나랑



◀ 큐티로 가정예배 자료실 바로가기

- ♥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
- ♥ 주중에는 개인 큐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려요!
- ♥ 쉽고 친절한 지침서로 누구나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QT지를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만나세요.

종이책

방법 하나, 정기구독
매달 원하는 주소로 편리하게 배송!

방법 둘, 단권 구매
전국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정기구독 센터
문의 ☎ 02.2078.3200

생명의삶 APP

30일, 90일, 360일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하는
생명의삶 모바일 QT

생명의삶 앱 다운로드 후,
모바일 QT 하세요.



APP 다운로드
문의 ☎ 02.2078.3233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방법 하나, 큐티 플랜 정기구독 후,
모든 QT지를 자유롭게 이용!

방법 둘, 웹 매거진, PDF 단권 구매

세대별 · 언어별 QT, 역본 대조,
PDF / 웹 매거진 / 오디오로
묵상하고 노트를 작성해요.



두플러스 다운로드
문의 ☎ 02.2078.3234

